



# 전북, 비수도권 첫 벤처펀드 1조…투자 생태계 ‘활짝’

아이에스피·에너베어 등  
도 펀드 ‘마중물’ 투자유치·고용 성과  
수도권 기업 패세 이산 본사 이전  
페스카로, 코스닥 상장 결실

전북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누적 벤처 펀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북의 펀드가 지역 기업에는 ‘성장의 사다리’로, 수도권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며 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창업의 한계를 넘어 기술력에 날개를 단 대표 사례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기업㈜아이에스피가 꼽힌다.

전북에서 태동해 도 펀드의 지원으로 도약한 이 기업은 20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55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현재 확보한 R&D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정권 대표는 “지역 기업으로서 가장 큰 고민은 기술력을 뒷받침할 대규모 자금 확보였다”라며 “전북 펀드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수혈을 넘어 우리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 후속 투자 유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성장이 지역의 기회로 이어지며 청년의 꿈을 담은 이야기도 있다.

이차전지 전문 기업 에너에버터리 솔루션㈜은 도 펀드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모델이다. 15억 원의 도 펀드 투자를 받아 총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이 기업은 2022년 완주군에 공장을 설립한 후 전체 직원 70명 중 50여 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신상기 대표는 “전북의 선제적인 투자가 있었기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며 “12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전북 이차전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 기업도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팡세는 전북 펀드를 마중물 삼아 이산 본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도약을 준비 중이다.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팡세는 15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8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완료하며 양



전북도가 비수도권 최초 누적 벤처펀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사진=전북도>

산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성준 대표는 “전북은 펀드 지원뿐만 아니라 식품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가 매우 탄탄하다”며 “전북 펀드 투자 결정이 본사 이전을 확정 짓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코스닥까지, 연구소 기업의 비상도 펼쳐졌다.

전북 펀드 투자의 최고 결실은 기업공개(IPO)다. 군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차량 보안 솔루션 기업 ㈜페스카로는 10억 원의 도 펀드 투자를 시작으로 총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난 12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전북 투자 생태계의 저력을 증명했다. 페스카로는 타타대우, 전북자치도 등과 협업하며 지역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홍석민 대표는 “전북의 연구소에서 시작한 혁신 기술이 코스닥 상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제어기 부문 생산 라인 등 전북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안호영 “용인 반도체 리스크, 지방 분산 배치가 해법”

안 의원 “용인 사업 90% 계획 단계  
입지 재배치 가능한 시점”  
“전북, 대안 제시하면 선택지 될 것”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 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결정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를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해법 마련 ▲ 전북·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는 연결된 사안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이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대안 지역이 되더라도, 첨단산업 유치는 전북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

## ‘새만금 반도체가 해법 중앙당 특별위원회 구성 완’



안호영 위원장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전력·용수를 점검하고 전북·새만금에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회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들이 이미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왔다”며 “지방 분산 배치 외에는 근본적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SK의 펤 1기를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여전히 계획 단계로, 입지 재배치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상황을 언급한 뒤에 “삼성은 시장 상황상 조속한 양산 체제 가동이 필요하지만, 용인에서는 전력과 용수 문제로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전북이 3~4년 내 공장 가동이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입지 조정이 검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위원장은 “전력·용수 공급,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세제·행정 지원, 반도체 생태계 조성, 노동자 주거와 정주 환경을 포함한 종합 평가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는 이미 국가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에너지를 다루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은 이 위기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바꿀 출발선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전북이 국가 전략산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예산을 전년 1억6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고, 컨설팅·시설개선·교육을 연계한 평가지 지원을 추진한다. (사)전북산학융합원과 함께 산업 단지 내 취급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신규 대상 ‘진단 컨설팅’과 기존 참여기업 ‘모니터링 컨설팅’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시설개선은 배관·저장탱크 교체, 누출 감지·경보 시스템, 유출 방지 설비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세기업은 전액 지원하고 중기업 10%, 중견기업 20%를 자부담한다.

교육은 권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법정 안전교육을 대체 운영하며,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컨설팅 30개소, 시설개선 10개소, 인력양성 30명을 지원했으며, 재참여 희망률은 100%로 나타났다.

/김은지 기자

## 道,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환경안전 지원 전면 확대

전북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4억 원을 투입해 환경안전(EHS)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산업현장의 화학사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는 총 34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전년 1억6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고, 컨설팅·시설개선·교육을 연계한 평가지 지원을 추진한다. (사)전북산학융합원과 함께 산업 단지 내 취급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신규 대상 ‘진단 컨설팅’과 기존 참여기업 ‘모니터링 컨설팅’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시설개선은 배관·저장탱크 교체, 누출 감지·경보 시스템, 유출 방지 설비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세기업은 전액 지원하고 중기업 10%, 중견기업 20%를 자부담한다.

교육은 권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법정 안전교육을 대체 운영하며,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컨설팅 30개소, 시설개선 10개소, 인력양성 30명을 지원했으며, 재참여 희망률은 100%로 나타났다.

/김은지 기자

## 한병도 원내대표단 인선 마무리…대변인단 유임

15일 본회의서 2차 특검처리  
비서실장 이기현 의원 임명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산  
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  
원회와 정지개  
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표가 13일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이기현 의원을 임명하고, 원내 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한 원내대표는 친명 천  
준호 의원을 신임 원내운영수석부  
대표로 임명하고, 원내정책수석에

김한규 의원, 원내소통수석에는 전  
용기 의원을 임명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서울 강북갑 지  
역구의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국  
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당 전략기획위원회장을 지냈으  
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대  
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친명이다.

김한기 원내정책수석은 제주시를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는 13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전북지역 농어업 대전  
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 전북서 ‘농정 대전환’ 시동…농특위 순회 첫 설명회

청년농창업 등 전북 6대 전략 발표  
김제スマ트팜혁신밸리 현장 방문

첫 순회지인 전북에서는 농생명산  
업수도 육성 성과 및 전략으로 ▲청년  
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  
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  
태계 고도화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  
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  
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힐링  
농촌 조성 등 6대 전략의 추진 성과와  
2026년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강화, 지역단위 공동영농 조  
직 및 인력은행 확대, 시설원예 전환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 귀농귀촌 활성  
화 방안 등 협약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건의가 쏟아지며 토론이 펼쳐졌다.

오후에는 김호 위원장을 비롯 위원회  
관계자들이 김제スマ트팜혁신밸리를  
찾아 청년농업인 교육센터와 실증단지  
를 둘러보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국정철학  
에 발맞춰 정책을 확장·체계화해 성장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화재예방 수칙



**1. 대진 불씨 확인 철저**



**2.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3. 음식물 조리 중 자리 지키기**



**4. 초 사용시 주변 가연물 제거**



**JBT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 전주시 '태평·추천대지구 개발' 규제 개선

## 주거산업 기능 조화유도

전주시가 준공업지역인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는 준공업지역 내 대지의 최대개발 규모(1000㎡)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하

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개발 규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태평·추천대지구 해당 구역 내 준공업지역이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연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저이용·공동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했다.

특히 시는 토지이용이 저해되고 개발

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이는 허용용도 내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노후화 방지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지구단위구역 외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 발굴해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국민신문고” 운영

전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지역 주민 고충과 불편 사항을

청취·상담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이다.

특히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상당 분야는 △행정·교육 △세무 △복지 △노동 △주택·건축 △교통 등 생

활 민원 중심으로 진행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완산구청 8층 강당에서 운영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2026년 농업기술보급 지원사업’ 공모

###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전주시가 2026년 다양한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강세권 소장은 오는 30일까지 ‘2026년도 농업기술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시는 올해 총 34억원을 투입해

△농업기계 △청년농업인 육성 △식량작물 △원예작물 △도시농업 등 5개 분야 28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 활동 기반 조성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농자재 및 병해충 방

제 지원 △민감작물 수급 안정 생산기술

산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현장 애로사

항 해결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다.

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해 접수기한 내 전주시 농업기술과 또는 동 주

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년 전주시 농업기술보급 사업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북시군의회의장협동연수 ‘역량 강화’ 합동연수

###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소통·홍보 역량 교육

전북자치도시군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동교육연수가 13일 전주 더 메이호텔 마제스틱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연수는 전북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남관우 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 등 도내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 직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윤리와 법적 책임, 소통과 홍보 역량 등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책 특강은 용인시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창술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주요 위



전북자치도시군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동교육연수가 13일 전주 더 메이호텔 마제스틱볼룸에서 열렸다

반 사례 및 유의사항, 이해충돌방지법 체크 포인트 등을 설명했다.

소양 특강에서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지혜 교수가 정치인으로서의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기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국회의장 행사기획자 문관인 타현민 대표는 ‘기획과 연출, 정치에 접목하다’라는 주제로 의정 성과 홍보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을 대변하고 중앙정부에 지역 현안이 잘 전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국승철 완산구청장 ‘2026년도 5대 방향 및 15개 목표’ 발표

### 소통행정·동행복지·안전실현 생태순환·생활경제 5대 구정 운영

완산구가 2026년 구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대민 서비스 강화와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꾹꾹 눌러 차운다.

13일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소통과 신뢰로, 시민과 함께하는 완산” 구정 운영

5대 기본 방향 및 15개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구의 5대 기본 방향은 △소통행정 △동행복지 △안전실현 △생태순환 △생활경제 등이다.

구는 동장 중심의 현장 순찰제 및 현장 행정의 날 확대와 주민자치프로그램과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토

지대장 디지털화와 지적재조사 사전 안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 재난·재해위험지역과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집중 관리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 폭염·폭설·호우 등 각종 자연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키로 했다.

도로·교량·하수도 등 생활안전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민

체감형 안전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구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고용 연계를 강화하고 정확한 지방 세 부과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2026년 한 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확대

### 2026년도 18곳 확대 운영 지난해보다 3곳 늘어

전주시는 2026년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기준 15곳에서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표본 감시는 △인플루엔자 △기생충

감염병 △수족구병 △성매개감염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안과 감염병 등 표본 감시 감염병에 대해 표

기증365소아청소년과의원 △이지영소아청소년과의원 △해강내과의원 등 3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이울러 기존 표본 감시 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늘푸른소아청소년과를 변경지정했다.

시는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지역사회

상시적 재난 대응 과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순 인명 구조보다는 ‘생활안전’, ‘교통사고’, ‘승강기·농기계 사고’ 등 복합적이고 난이도 높은 구조 출동이 증가해 구조대원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전주덕진소방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구조대원과 펌프차구조대원을 포함한 교육훈련 대상을 중심으로 연간 최소 130시간의 일상 교육훈련과 40시간 이상의 특별구조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지역사회

이는 구조 출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이는 구조 출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 위한 것이다.

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아동 “늦은 퇴근에도 안심”

### 맞벌이 및 긴급상황 가정

#### 6~12세 아동 대상

전주시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주 지역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참여기관은 8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 다함께돌봄센터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을 활용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예수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소방청장 표창장 수상

### 의정갈등 의료공백 속 국민 생명 보호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

급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가운데서도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응급환자 수용 체계 유지 △중증·응급 환자 우선 진료 △소방·구급대와의 실시간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 안전망을 지켜왔다.

특히 119구급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송 지역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홍인 센터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응급의료진과 소방 구급대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김기욱 교수 연구팀 ‘CES 2026’ 혁신상 수상

### 디지털헬스 부문 혁신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재활의학과 김기욱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가상현실 기반 통증 진단 시스템 ‘SenseFeel’이 ‘CES 2026’에서 디지털헬스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최한 ‘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CT 기술 전시회로, 전 세계 4100개 이상 기업과 148,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가했다.

특히 동일 자국 조건에서 나타나는 통증 인지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증 처리 경로의 변화를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소민 기자

# 전북 기업이 바라본 경영·경제전망 조사

## 기업 67.2% “안정 경영” 환율 안정·투자·소비 활성화 정책 필요

고환율과 대내외 불확실성 장기화로 전북지역 기업들은 2026년에도 경기 회복보다는 정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전북지역 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 기업이 바라본 2026년 경영·경제전망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0.2%가 2026년 한국경제 전망을 ‘2025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경기 악화’를 전망한 응답은 31.3%,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28.6%)을 웃돌아 전반적으로 회복 기대보다는 보수적인 관망 기조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 대 후반까지 상승하며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환율은 기업 경영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이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 조달·국내 판매 중심으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는데, 지역 기업들은 원재료 국내 조달 비중이 높고 판매 역시 내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율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6년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로는 ‘안

정(유지) 경영’이 6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확장(성장) 경영’은 21.8%, ‘축소 경영’은 10.9%로 나타나 대다수 기업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 요인으로 ‘금리 인하 및 금융 여건 완화’(20.7%)와 ‘국내 기업 투자 확대’(1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성’(22.6%), ‘고환율 및 환율 변동성 확대’(21.3%), ‘글로벌 경기둔화’(17.0%)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정부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도 이어졌다. 기업들은 2026년 경제 활성화와 실적 개선을 위해 ‘국내 투자 촉진’(24.4%)과 ‘소비 활성화’(21.7%), ‘환율 안정화 정책’(17.6%)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투자 확장과 거시경제 안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고환율과 비용 부담,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로 지역 기업들은 2026년을 반등보다는 정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환율 안정과 금융 여건 개선, 투자·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 전주기상지청, 한파 피해 예방 캠페인

### 시장상인대상 행동요령 홍보

여자율방재단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방한용품 나눔 행사와 함께 한파 영향 예보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겨울철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상인들이 한파 영향예보를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 전주사무소 설치 자산운용사와 첫 간담회

## 김성주 이사장, 자산운용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3일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한 자산운용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성주 이사장 취임 후 전주에 둉지를 튼 국내외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전주사무소를 운영하며 느낀 애로사항을 얘기하며 지역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국민연금과의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졌다”라며, “더 많은 자산운용사가 지역에서 활동하려면 교통·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지역 가점은 강화하는 등 지자체와 공단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지역에 뿌리내리려면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국내 외 운용사들이 국민연금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며 “전주가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반드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윤리경영 실천’ 결의

### 실천 결의문 작성·동참 결의

집중으로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다짐했다.

한편, 전북검사국은 윤리경영을 위해 지난 9일 전북검사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심천심 운동’을 통한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작성하고,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동심협력의 자세로 농정대전환에 적극 동참하고 △법령과 제규정 준수로 범농협 공신력에 제고에 기여하며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유통사업 혁신과 역량

/정혜민 기자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새로 육성한 우량종자를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신속히 보급해 외래 품종 및 오래된 품종 대체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종자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체계적인 품종 관리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을 통해서만 분양 신청받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 과황택상 과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등 국내 농업 환경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종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환경과 식량안보 체계를 지키는 농업기술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 전북TP, 이차전지 관련 기업 장비활용 수요조사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대상 장비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재)전북테크노파크를 주관으로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및 군산대학교가 참여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21) 전용공간 및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 20종을 구축해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혁신소재 고도화를 위한 실시간 고도분석기술 인프라 조성 및 고도분석 프로세스·성능평가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전북테크노파크는 향후 구축 예정인 고도분석 장비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 기업수요를 반영해 장비 도입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정혜민 기자

# 전북은행 ‘26년 달리란 말이야 특판 적금’ 출시

##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3.10% 금리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새해를 맞아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26년 달리란 말이야 특판 적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3월 31일까지 판매하는 ‘26년 달리란 말이야 특판적금’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6개월, 12개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금리는 6개월 연 2.60%, 12개월 연 2.80%, 24개월 연 2.70%이며, 12개월 가입 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3.10%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고 연 0.30% 제공되는 우대금리

는 전북은행 임·출금계좌에서 해당 적금으로 계약기간의 1/2 이상 자동이체 입금 시 연 0.20%, 특판 적금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우대금리 연 0.10%가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개인, 개인사업자 및 일반 법인이며, 가입 금액은 계좌당 월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하다. 총 판매한도는 10,000좌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복년 새해를 맞아, 고객들의 모든 일이 역동적으로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특판 적금을 출시했다”며 “새해에도 전북은행은 고객의 일상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은 금융 서비스와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새해를 맞아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26년 달리란 말이야 특판 적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혜민 기자

# AI 디지털 리터러시 ‘학교 교육과정’ 연계

## 전북교육청, AI 디지털 ‘윤리·판단’ 중심 교육 전환

전북교육청은 2026년도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해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올바른 AI 이해와 책임감 있는 활용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기기

를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한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AI 디지털 윤리 학생교육자료 개발 △디지털 디톡스 캠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영화를 통해 바라본 AI와 디지털 세상 등 다양한 형태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AI와 디지털 기술 사용에서 무분별 사용을 벗어나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인식 변화를 보였다.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들은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따른 공감의 기회를 가졌다.

2026년에는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향이 ‘기술 활용 중심 교육’에서 ‘윤리·판단’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한 △생성형 AI 활용 △가짜뉴스·딥페이크 대응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 실질적 디지털 환경 교육을 진행한다.

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지난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지속 운영해 학생들

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 대상 AI 디지털 윤리 교육을 확대해 가정에서도 일관된 교육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고도화와 현장 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추가 개발 및 보급하고 교사가 부담 없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사례 공유 등 지원을 병행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 정착을 도모한다.

/김영태 기자

## “교육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 재충전하세요”

### 전북교육청, 교원치유 프로그램 23일까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기 중 교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교원들에게 치유와 회복,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방학 중 휴 프로그램’을 오는 23일까지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도내 전문 치유기관에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기 중 교육활동으로 누적된 교원의 피로와 정서적 소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8개 프로그램, 총 50회로 운영된다.

/정혜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기 중 교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교원들에게 치유와 회복,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 전북현대모터스FC, 2026시즌 스페인 전지훈련 출발

### 최상의 기후·훈련 환경 스페인 마르베야서 팀 완성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신임 정정용 감독과 함께 2026시즌 정상 수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전북현대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지훈련지인 스페인 마르베야로 출국, 담금질을 시작했다.

이번 전지훈련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선수단은 모든 일정을 마친 후 2월 14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훈련 장소인 스페인 남부의 마르베야는 겨울철에도 온화한 기후와 최상급 잔디 상태를 갖춰 최고의 환경을 갖춘 전지훈련지다.



전북현대모터스FC가 신임 정정용 감독과 함께 2026시즌 정상 수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장정철 기자

## 겨울철 야외활동 복병 “동상”

### 추위에 노출된 시간보다 노출상태가 중요

- 추운데 오래 노출되었을 때보다는 피부의 상태, 특히 젖은 상태 또는 꽉 끼는 장갑으로 추위에 노출될 때 동상 위험



### 동상 예방



추운 환경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꽉 끼거나 젖은 옷은 피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자주 움직여 몸을 따뜻하게

얼굴이나 귀의 동상은 따뜻하게 대운 찜질팩 또는 수건으로 마사지

### 동상 조치

- 신속히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

-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

1. 증상이 느껴지면 최대한 빨리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 후 젖은 의복을 벗고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

2. 38~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는 것이 가장 효과적

· 환자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전기담요나 난로 등에 직접 노출시키거나, 술이나 담배 등을 주어서는 안됨



## 전북현대모터스FC N팀, 신인선수 12명 영입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신인 선수 12명을 영입하며 미래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전북현대의 유스 시스템인 ‘전북현대 U18전주영생고’ 출신들을 주축으로, 대학 무대와 고교 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고의 유망주들로 구성됐다.

전북현대는 2025시즌 준프로 신분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이한결(GK), 한석진(RFW), 김수형(CB)과 정식 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동갑내기 유스 출신 박현민(MF)도 잠재력을 인정받아 프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우선지명계약으로는 전주대학교 문준혁(MF)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프로에 합류했다.

대학 축구의 강자로 군림한 3명의 선수도 전북현대에 등지를 틀었다.

곽희벽(RB, 단국대), 정대영(GK, 경민대), 우현수(DM, 광운대)는 대학 시절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즉시 전력감에 준하는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고교 무대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히는 4명도 합류했다.

고교 축구의 신흉 강호 전원FC 출신의 김주형(CB)과 이건희(CM)를 비롯해, 신태인FC의 공격수 김두현(FW), 전통의 명문 부평고의 안태훈(LWF)이 전북현대 N팀의 공격과 수비에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전북현대는 N팀 시스템을 통해 신인 선수들이 성인 무대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A팀으로 승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현대는 “구단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유스 출신들과 외부 우수 자원들이 조화를 이뤄 팀의 미래가 더욱 밝아졌다”며 “팬 여러분께서도 전북의 새로운 주역이 될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영입 절차를 모두 마친 선수들은 구단 공식 훈련에 합류해 13일 인도네시아 발리로 동계전지훈련을 떠났다.

/장정철 기자

정읍시,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 신청접수

정읍시가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영농 확산에 나섰다. 시는 품목별로 최적화된 데이터를 농가에 적용하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기후 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 사업'의 후속·확대 사업으로,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각 품목에 맞는 최적의 생육 환경 데이터를 실제 영농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규모는 총 10개소이며, 국비와 시비 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환경·생육 제어기기와 정밀 센서 등을 지원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목별 생산성 향상 모델을 농가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 농업인과 주민이 중심인 연구회, 공동선행회 등이다. 시는 재배 환경 및 생육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습득한 정보를 공유해 지역 농업 기술 향상에 기여할 의지가 강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의 미래 '정책 경진대회' 청소년 10팀·40여 명 참여

익산시가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13일 교육발전특구 고등산학관 커뮤니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청소년 정책 체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경진대회 최종 발표에는 청소년 10팀, 40여 명이 참여해 '살기 좋은 익산'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청소년 정책 체감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교육과 일자리(창업) 분야를 직접 고민하고 이를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

교육 과정에서 윤찬영 전주대학교 초빙 교수의 '익산에서 산다는 것', 한승현 국가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의 '로컬콘텐츠 학 개론' 등 강의가 진행돼 청소년들의 정책적 시야를 넓혔다. 이어 로컬콘텐츠, 문화, 도시재생, 정책·행정 분야 전문가 4명이 멘토로 참여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고도화했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날 최종 발표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3개 팀이 선정됐다. 심사는 자원 활용 가능성, 정책 효과성, 제안의 참신성, 발표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수상팀에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으로 떠나는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지역특화산업과 도시재생, 교육혁신 사례를 탐방하며 국제적 시야와 정책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유)강한크레인, 군산 나운2동 착한가게 신규 가입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한 (유)강한크레인(대표 강신재)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판을 전달받은 강신재 대표는 "나운2동에 많은 착한가게와 착한가정이 있다. 소식을 들었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착한가게에 가입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구우 나운2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선뜻 착한가게 가입을 해주신 강신재 대표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꾸준히 기부된 성금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다양 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문화유산 41필지 지목 현실화

## 농지·임야 관리 부지 '사적지'로 변경 행정 불일치 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해 정읍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유산들이 마침내 제격에 맞는 지목을 갖게 됐다.

정읍시는 과거 행정 미비로 인해 농지나 임야로 관리되던 41필지의 문화유산 부지를 조사해 '사적지'로 변경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성서원(사적 제166호)과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피향정(보물 제289호), 천곡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등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장 등 행정 공부상에는 전(밭), 담(논), 임야, 종교용지 등으로 표기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았다.

시는 유적지의 위상에 걸맞은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통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문화유산 지정 관보와 고시문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민원지적과, 동학유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해 과거 행정 절차상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사유지인 무성서원 부지 15필지(6946m<sup>2</sup>)는 소유주인 유립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해 9월 지목 변경을 마쳤다.

또한 국·공유지인 피향정 등 3개 부지 26필지(9473m<sup>2</sup>)는 담당 부서인 동학유산과의 신청으로 지난해 11월에

'사적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시는 문화재 구역 내 불일치하던 지목을 '사적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관내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행정적으로도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민관이 협력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드는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아기통장 개설 시 10만 원 지원

## 익산시-원광새마을금고 '출생축하 지원사업' 협약

시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익산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익산시 출산장려금 100만 원과 첫만남지원금 200만 원을 포함해 총 3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익산시 출산장려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을 지원하고, 첫만남지원금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대상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익산에서 출생신고를 한 자녀를 둔 익산시민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의회, 2026년도 의정활동 시작

## 제309회 임시회 개회 공공교통 대전환 등 촉구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국립공원과 지자체 상생발전을 위한 정읍시의 과제'를 통해 내장호 주변 종합 발전계획에 인근 주민을 위한 시책이 반영될 것을 촉구했고, 이상길 의원은 '교통기본권 시범도시 선포를 통한 공공교통 대전환 촉구'를 통해 교통을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교통체

계로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이학수 정읍시장의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 보고를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있으며,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 청년뜰 창업센터, 지난해 매출 성과 ↑

## 약7억6천만원 직접매출 지속가능한 매출구조형성

매출 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형 유통망 진출 및 전방위 판로 개척 센터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위 판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롯데몰 군산점과 연계한 팝업 부스 행사에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정식 입점 제안을 받거나 단독 팝업 행사를 연장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실제 라이선스 계약과 유통망 확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랐다.

지식재산권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마련 창업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중장기 기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지식재산권(IP) 출원 사업도 결실을 맺었다.

이는 단순 수치를 넘어 이커머스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온라인 판매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서 유리한 고지를 접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을 축적하도록 도왔다.

진행됐던 교육 프로그램 역시 후속 성장을 돋는 '창업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실제로 2025년 수료생 중 3명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공모사업에 연계 선정돼, 센터의 교육이 외부 자금 확보와 사업 고도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장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 창출부터 자금 연계까지 이어지는 구조화된 창업 지원 모델을 지역에 성공적으로 확장시켰다"며, "2026년에도 청년

과 창업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4.58% 혜택

### 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군산시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2026년 1월에 연납할 경우 4.5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있지만, 공제 혜택이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먹으려 오는 도시' 기반 다졌다

익산시가 지역 대표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식으로 관광경제를 이끄는 도시' 기반을 본격 다져가고 있다.

시는 13일 '외식업소 경영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광보건대학과 라이즈(RISE)사업단, 새한국외식창업교육원과 함께 추진한 이번 사업은 대표 맛집들의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변화와 매출 증대를 이끄는 데 중점을 뒀다.

대상은 대물림 맛집과 향토음식점 등 지역 인증 음식점 6개소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외식 경영, 위생, 서비스, 메뉴,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의 집중 현장 컨설팅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먹으려 오는 도시 익산의 미식 브랜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 50% 지원

정읍시가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품격을 제공하기 위해 시비 8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를 재원으로 2026년도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양돈농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시설 지원 외에도 다각적인 환경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축산 냄새 중점 관리 농가 16곳을 선정해 악취 저감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시는 올해도 미식산업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표 맛집 육성 △미식 관광 콘텐츠 확대 △로컬푸드 활용 강화 등 미식도시 익산 브랜드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먹으려 오는 도시 익산의 미식 브랜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는 냄새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에는 민원 걱정 없는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시설 지원 외에도 다각적인 환경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축산 냄새 중점 관리 농가 16곳을 선정해 악취 저감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축사 바닥의 수분 조절에 필요한 톱밥과 왕겨 구입비 30%를 지원하고, 매주 1회 '축산환경·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이학수 시장은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악취 저감은 축산 업이 주민과 공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제·전북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 협약

2026~2028년까지  
75억원 투입 금구면  
공급배관 사업 추진

김제시는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대표 김홍식)와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금구면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금구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간 시는 금구면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증가하는 도시가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요조사를 통해 대다수 주민의 희망의사를 확인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전북도시가스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75억원을 투입, 12.4km의 도



김제시는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와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금구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가스 공급배관을 구축할 계획으로, 완료되면 2028년 이후부터 서희스타힐스 등 공동주택을 포함해 금구리와 서도리 등 면소재지 일원 1,700세대에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연료비 부담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대표도 “금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한 배관설치를 최

우선으로 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 공급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동부권 중심지인 금구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할 수 있게 돼 기쁘며, 주민 정주여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산후 조리비 대폭 확대 지원

최대 130만원까지… 지난해  
출산산모 소급 신청 가능

부안군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을 기준 5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됐으며 분만 후 1년 이내 산모를 대

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2024년에는 75명에게 3812만원, 2025년에는 118명에게 총 6043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簿에 군에 두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과 산후조리 전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 나눔대화 대장정 시작

고창읍 시작으로 14개 읍·면 순회 릴레이

심덕섭 고창군수가 오늘 오후 고창읍을 시작으로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 대장정에 나섰다.

심덕섭 군수는 13일 고창읍 주민행복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열었다.

심 군수는 이번 나눔대화를 통해 올해 슬로건인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의 의미를 설명하고 4대 추진방향(서민경제 활성화, 미래첨단산업 육성, 세계유산의 특별한 활용,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군민과 함께 공유한다. 읍·면 방문인 만큼 역점사업들의 현안과제에 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14개 읍·면 순회 나눔대화에선 군정 계획 보고, 활력 군민상 시상, 군정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군정 발전방향과 정책제시, 행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고, 심 군수가 직접 답변해 나섰다.

실제 고창읍에선 스터미널도시재생사업 주진상황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올해 일정 설명 등이 상세하게 이뤄졌다.

심 군수는 정책 추진 절차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군민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약속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이 가진 문화·역사·예술·관광 등 매력 자산을 활용해 산업화하고,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2026년에도 인구 증가세 이어간다

정주·생활인구 연계  
인구정책 본격 전환

김제시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주민 등록 인구가 81,676명으로, 전년 대비 1,041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을 인구정책의 전환기로 규정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속에서도 인구 이탈을 최소화하고, 체류·관계인구를 정주로 연결하는 정책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출생부터 결혼·정착까지 전 생애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출산·양육 단계에서는 △출산장려금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복지사업으로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학령기에는 △청소년드림카드 △김제사랑장학금 및 격려금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 총을 대상으로는 △진입장려금 △취업 청년 정착수당 등을 연계해, 유입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착 지원을 집중한다.

또한 올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출산·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에 시비를 매칭해 참여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던 계대 추진한다.

만 18~39세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기 소득 공백을 완

화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이 6인 이상 자랑을 구입할 경우 5백만 원을 지원하는 ‘3자녀 이상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도입해 다자녀 가정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26년 인구 증가세 유지를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전략으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김제형 일주 일 살기 프로그램 도입 △관외 시민 대상 특별여행 캐시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체류·관계 형성·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인구 흐름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5년 인구 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단 운영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생활 질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곤혹”

횡령·배임 주장, 근거 없어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곤혹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 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

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출장비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다”며 “결과보고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곤혹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횡령·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보도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군은 앞으로도 규정에 따른 투명한 예산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2026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사전 안전교육

고창군이 13일 고창경찰서와 협동으로 피해방지단 35명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종기 사용안전수칙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안전 수칙, 활동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눴다.

피해방지단은 오는 19일부터 12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유해야생동물로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시 구제활동,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멧돼지 포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지 않고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포획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작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실적은 총 2459마리로 멧돼지 129마리, 고라니 741마리, 까치 1589마리 등을 포획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 백산면,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교육 실시

부안군 백산면(면장 박선이)은 지난 12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협약서 작성 및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참여자 활동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다.

백산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며,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관내 7개 구역에서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이 백산면장은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기본구상 검토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김제시는 13일,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그동안 타지자체의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민들이 고향에서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김제시에 적합한 선진 장사문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화장 수요 증가에 따라

봉안시설의 조기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고장 수요 증가에 따라

봉안시설의 조기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 완주군, 주거안전망 강화 종합계획 가동

**주거취약인 긴급주거·임대지원 확대  
청년·신혼 월세·전세보증금 지원  
그린리모델링·장애인 주택개조**

완주군이 2026년 주거취약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주거복지 종합 추진계획'을 본격 가동한다.

13일 완주군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폐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금여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혼부부·청년 주거 안정 지원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해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과 이사비를 지원해 주거 위기 해소에 나선다.

신혼부부·청년 주거 안정 분야에서

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거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맞춤형 패키지'로 관광객 유치 지원 나서

**개별·단체 숙박·체험·버스비 지원  
여행사·언론 대상 팸투어**

순창군이 올해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군은 숙박비와 체험비 지원을 비롯해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팸투어 운영 등 여행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업은 ▲개별 관광객 숙박 및 체험비 지원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여행사·언론인 대상 팸투어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개별 관광객 숙박 및 체험비 지원사업은 2인 이상 10인 미만 관광객이 순찰을 방문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하고 주요 관광지 1곳을 방문하면, 1인당 숙박비 최대 1만 원, 농촌 체험 시체험비 50% (최대 1만 원)가 지원된다. 단, 군 운영 체험시설이나 캠핑·차박은 제외된다.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은 20인



순창군은 올해 숙박비와 체험비 지원,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팸투어 운영 등 여행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 <사진=순창군>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버스 1대당 탑승 인원에 따라 20인 이상 흥보 콘텐츠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참가자에게는 체험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이 지원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민간 숙박·체험시설 연계를 강화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순창군>

## 완주군 상관·동상 '둘레길' 속도…힐링·생태관광 점검

**13일 연초방문서 지역주민 소통  
수변 관광개발 지역경제 활성**

완주군이 연초방문으로 13일 상관면과 동상면을 차례로 방문해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관면에서는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 소유로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상관저수지와 정수장 일원을 자연과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힐링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추

진되고 있다.

총사업비 19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수변데크길 조성과 힐링공원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주민들은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둘레길 조성, 자연 친화적인 힐링공원 조성, 환경 훼손 최소화와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동상면에서는 '대·동상지구 둘레길 조성사업'을 비롯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동상면은 만경강 발원샘과 대·동상지수지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군은 기존 관광자원개발

사업과 연계해 멀티풀과 즐기는 체류형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둘레길 조성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저수지 주변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군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동상면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상관면과 동상면이 가진 자연과 자원을 살려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김명곤기자>

## 남원시 천문과학관 '낮밤 별보기' 체류형 콘텐츠 강화

**겨울방학 '주·야간 패키지' 운영  
별자리·태양 관측 연계형 체험**

남원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남원시 천문과학관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은 주간에 천문과학관을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당일 야간관측을, 야간 관측에 참여한 관광객에게는 익일 주간관측을 무료로 제공하는 연계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료 발권 관광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은 하루 이상 머물며 낮과 밤의 천문관측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라는 점이 특징이다.

남원시 천문과학관은 해시계, 자격증 등 14종의 과학 체험물을 활용한 참여



남원시는 내달 28일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원시 천문과학관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남원시>

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리모델링을 마친 호남권 유일의 4K 풀돔 4D 영상관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영상과 함께 우주·과학 이야기를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겨울철에도 실내외 체험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날씨와 관계 없

이 안정적인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밤하늘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과 주간 태양관측을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관광객에게도 색다른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정하복 기자>

## 순창군, 지방세 개편 맞춰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빈집 철거 재산세 50% 경감  
생애최초 출산 양육 혜택 유지**

순창군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더불어 무주택자,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외에도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혜택도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군은 세무상담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주민들을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고 내년 12월까지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건설기계 면허 적성검사 기한 내 이행 촉구 "불이익 주의"**

남원시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원시 관내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 8,424명 중,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93명이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연 기간 30일 이내 5만원, 31일부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돼 최고액 2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 미이행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적성검사는 주소지 관할 등록기관에 신체검사서, 기존 조종사면허증, 사진 1매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3톤 미만 자제차 면허 소지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수준의 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해당 검진 결과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기록만 인정된다.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새 면허증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놓쳐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장학숙, 2026년도 신규입사생 모집

**총 34명 모집 26일부터 접수  
4억 4천 투입 노후 시설 개선**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에서 운영하는 남원장학숙이 2026년도 신규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34명이며, 신청 자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또는 학생 본인 중 한 명 이상이 남원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월 3일 까지이며, 방문 접수(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또는 서울 남원장학숙), 이메일(zhieun12@korea.kr), 등기우편을 통하고, 3년 이내 신축할 경우 취득

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남원장학숙은 올해 대대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입사생들의 생활 환경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총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숙사실 도배·장판 및 옷장 교체 등 생활공간 환경 개선 ▲독서실 노후 시설 개선 ▲학생 휴식과 교류를 위한 북카페 조성 ▲옥상 방수 공사 및 건물 외벽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춘향장학재단 관계자는 "신규입사생 모집과 함께 시설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지역 인재들이 타지에서도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설봉환(주)대한에스엠피 대표  
순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

순창군은 지난 12일 (주)대한에스엠피 설봉환 대표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순창군 금과면 출신으로 전기공사와 태양광 발전 설치 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주)대한에스엠피를 운영중인 설봉환 대표는 순창군에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하고, 기부에 따른答례품도 재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설봉환 대표는 "비록 몸은 타지에 있지만 마음만 항상 고향인 순창과 함께하고 있다"며, "순창의 미래를 열어갈 사람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겨울방학 맞이 초등학생 음악줄넘기 운영

완주군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월부터 2월까지 음악줄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음악에 맞춰 줄넘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성장기 아동의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한 신체활동 습관 형성을 돋우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진행되며, 줄넘기 기본 동작부터 음악에 맞춘 응용 동작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해 줄넘기가 처음인 아동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은 "겨울철 실외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에 아이들이 즐겁게 움직이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수상

### 2025 종합평가서 만점 '최우수'

(사)삼동청소년회가 운영하는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최우수시설'을 획득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2년마다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

사 및 조직, 시설 안전 및 환경 등 수련

시설 운영 전반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됐다.

서대현 관장은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남원시의 지원과 지지, 지역사회와 협력과 관심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은 특성화 사업인 캠핑프로그램과 청소년 광한루원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청소년의 주도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진안·무주·장수·임실



## 임실군,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 본격 추진

임실군이 지원순환 활성화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재활용품을 생활필수품으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읍·면사무소에서 시행되며,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친환경 상파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군민들의 생활 속 재활용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환 기준은 품목별로 종이팩의 경우 200ml 20개, 500ml 10개, 1,000ml 5개이며, 폐건전지 10개, 아이스팩 5개, 친환경 상파 2개를 모아으면 화장지 또는 새 건전지 1 개로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궈 펼쳐 말린 상태로 배출해야 하며, 아이스팩은 젤 타입에 한해 세척 후 완전히 건조된 것만 교환 대상에 포함된다. 친환경 상파는 플라스틱, 목재, 금속 등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 제작된 경우에 한해 교환이 가능하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은 군민들이 책과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독서 친밀감을 형성해 군민의 독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 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기간은 13일부터 3월 26일까지며 프로그램별 기간이 다르다.

운영 작은도서관은 △장수작은도서관 △산서작은도서관 △반암작은도서관 △천천작은도서관 △계남작은도서관 △계북작은도서관 등 6곳이다. 연중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매달 장수·산서·반암·천천·계남·계북에 위치한 6개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운영 프로그램은 장수작은도서관 '도서관에서 겨울나기-다不克다도 도서 나눔', 산서작은도서관 '2026 독서 다짐 철린지', 천천작은도서관 '그림책과 함께하는 음식 놀이' 등으로 가족 단위부터 성인 참여자까지 모두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장수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작은도서관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로 운영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조경 아카데미 '아주심기' 교육생 모집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오는 3 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2026년 조경 아카데미·아주심기'가 2기 교육생을 모집 한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돋기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조경수 생산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현장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 교육비는 10만 원이며, 신규 귀농귀촌인을 1순위로 선별하고, 정원 미달 시 진안군민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수료 시 농림축산식품부 교육 인정 100시간이 부여된다.

접수 기간은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신청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refarm1.com/page/>)에 나타난 QR코드와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진안=전길빈 기자

# “아이키우기 좋은 무주로 거듭난다!”

##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운영 시간 연장 등

무주군이 지난 9월 '2026년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6천만 원을 기반으로, 지역 대표 돌봄 거점인 무주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나선다.

맞벌이·돌봄 공백 가정을 돋기 위해 야간 운영 확대와 돌봄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으로, 13일부터 무주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무주상상반

디)의 평일 저녁 이용 시간을 연장 (화~금요일 10:00~21:00 / 토~일요일 09:00~17:00)하고 일요일에도 운영을 확대한다.

장년감대여성(휴관: 매주 월·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이용 (화~금요일)할 수 있으며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군은 이를 위한 전담 인력 2명과 보조 인력을 새롭게 배치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상시프로그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기존의 'ABC 키더 뮤직',

/무주=최의호 기자

'튼튼쑥쑥', '푸드아트', '블록교실'에 더해 '새싹 별례', '그림책 독서 활동', '오감 발달' 등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2개정~5개정으로 구성된 그룹 활동으로 진행하는 돌봄품앗이 활동 지원도 대폭 확대해 공동육아나눔터의 지역공동체 육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련 지원금이 2025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품앗이 회원만을 위한 다양한 체험·경학·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 '2026년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금석위개(金石爲開)' 실천 제시 역점사업 공유·성과 창출 다짐 '농어촌기본소득시대' 본격 시작

장수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 일간 군청 회의실에서 '2026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올해 군정의 주요 역점 사업과 핵심 과제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이정우 부군수, 국·소장, 20개 부서 각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했다.

장수군은 올해 군정 화두를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정하고 어떠한 일어든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단기간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축적해온 노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군정 과제를 차분히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군은 중점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군정 추진에 나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보고회는 주요 현안사업과 국책사업,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비전과 추진 전



장수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 일간 군청 회의실에서 '2026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올해 군정의 주요 역점 사업과 핵심 과제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각 부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야별 주요 중점사업으로는 △장수형 통합돌봄지원 사업 △산악 레저 관광 메가 조성 △장수 치후미를 조성사업 △드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운영 지원 △반할주택 등 맞춤형 주택 조성 스트레이트 및 레드푸드 신산업·일자리 육성 등이 제시됐으며 장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꼽혀 눈의였다.

특히 올해 군정에서 가장 눈에 띠는 변화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시적인 성과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한눈에 담아

### 인구정책 리플렛 제작·배포

진안군은 임신·출산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삶,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각종 인구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진안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리플렛은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과 생활 밀착형 지원제도를 생애주기 흐름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한 흥보물이다. 군민 누구나 자신의 생애 단계에 맞는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단순 나열하는 방식

에서 벗어나, 삶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

럽게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리플렛에는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돌봄 및 교육 △청소년 성장 지원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신중년 재취업·사회참여 △어르신 복지 및 건강관리 △귀농·귀촌 △농업인 지원 △가족 지원 등 진안군이 추진 중인 주요 인구정책이 생애주기별로 정리돼 있다.

이와 함께 교통, 교육, 문화·체육, 의료, 복지,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도 함께 담아 군민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안내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플렛 우측에는 진안군청 부서별·분야별 연락처를 함께 수록해, 포스

/전길빈 기자

## 무주군, 농촌자원 분야 시범사업 추진

### 농작업 안전 등 4개 분야 신청 받아

무주군이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2026 농촌자원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는 농작업 안전, 농식품 가공, 친환경농업, 농촌 체험 등 총 4개 분야로 총사업비 6억 9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지원,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지역특산물과 부산물의 가능 성분 상품화 시범,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등 11개 사업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받는다.

대상은 무주군 지역 내 농가나 체험 휴양 마을로,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별 평가 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마치고 2월 중 신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할 계획이다.

하현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자원팀장은 "농촌자원 분야

/무주=최의호 기자

## '치유도시 진안' AI 속초 영상콘테스트 공모

### 치유골목·산림·치유자원 홍보

진안군이 '치유도시 및 치유거리 진안'의 브랜드 확산을 위해 AI 속초 영상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과 진안군사회적경제센터가 수행 중인 라이즈(RISE)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속초 영상콘테스트를 통해 진안의 치유골목 및 산림·치유자원을 대중적으로 알리고자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치유도시 진안' 또는 '진안 치유거리'를 주제로 한 속초 영상을 제작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치유도시 진안' 또는 '진안 치유거리'를 주제로 한 속초 영상을 제작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영상은 50초 이상 90초 이내로, 생성형 AI 영상이 전체 분량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진안군 시장길 8-9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치유골목 영상은 최소 20초 이상 반드시 담겨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지역 특산품과 상장이 수여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이득' 세금부담 '뚝'

### 연간 자동차세 5% 할인 혜택

을 일시 납부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제도다.

할인 적용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1개월)에 해당해 이를 감안하면 연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 납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다. 이후 신청 할수록 할인율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임실군청 재무과(640-218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연세액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청년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 미래 기운다

### 정책자금 이차보전·영농기반 임차 지원·연계 청년농업 안정적 정착 기대

장수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2026 청년창업농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농 초기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자금 지원과 영농 기반 지원을 연계해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청년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고랭지 쌀 생산 준비 박차

### 벼 육묘·육묘 상토 지원 등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경된 곳은 반드시 현행화 후 신청해야 한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은 쌀 시장 개방과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브랜드화, 공동방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사업을 추진


**완주 화산면 새마을부녀연합회,  
사랑의 떡국떡 나눔**

완주군 화산면 새마을부녀연합회가 최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나눔은 마을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눔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새마을부녀연합회는 직접 마련한 떡국떡 180kg을 경로당 및 홀몸 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 90여 세대에 전달했다.

강은아 부녀회장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해 떡국떡을 맛있게 드리고 추운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마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정 화산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봉사활동을 해주신 부녀회장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을 위하여 나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군 정상식 진안읍장,  
장학금 100만원 기부**

진안시립장애인재단은 진안군 정상식 진안읍장이 지난 연말 받은 대통령 표창 수상을 기념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상식 진안읍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일군 성과를 나누므로 보답하고 싶었다”라며,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의 자녀들이 꿈을 펼치는 데 소중한 밀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전준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 행정을 이끌며 주민 복지 증진에 힘쓰는 가운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선뜻 마음을 내어 준 정상식 읍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러한 따뜻한 기탁의 마음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인재 육성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기탁금을 활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며 관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 굿네이버스, 정읍 저소득 아동에 장학금·난방용품 전달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정읍지역후원회 공동 지원**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지부장 김윤주)가 지난 12일 굿네이버스 정읍지역후원회(회장 이순자)와 손잡고 정읍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미취학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희망 장학금과 난방용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생활 환경에 놓인 미취학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아동들에게는 학습과 양육 비로 활용 가능한 희망장학금을

비롯해, 다가오는 추위를 대비할 수 있는 난방용품이 함께 전달됐다.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와 정읍지역후원회는 평소에도 아동의 권리옹호와 복지 향상을 목표로 다채로운 후원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번 물품·장학금 전달 또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순자 회장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걱정 없이 쓰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읍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 산내면 노인회,  
취약계층에 160만원 전달**

남원시는 지난 12일, 남원시 산내면 노인회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맞아 160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식은 남원시장실에서 열렸으며, 박준웅 회장을 비롯한 노인회 임원 4명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지난 9일, 산내면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에서 노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남원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회원들의 뜻이 담겨있다.

박준웅 산내면 노인회장은 “회원들이 모은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을 모아 마련한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노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께서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 따뜻한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군산숲정신건강의학과,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따뜻한 나눔으로 실천**


김호선 원장

군산시는 군산숲정신건강의학과(원장 김호선)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숲정신건강의학과는 군산시 조촌동에 소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진료 분야는 정신건강 전반을 비롯해 스트레스 관리, 집중력

저하·노인 정신건강 클리닉 등으로, 일상 속 마음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돋우고 있다.

김호선 원장은 “진료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마음의 어려움을 마주하며,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느끼고 있다”라며 “이번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

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혼신해 오신 데 대해, 따뜻한 나눔까지 실천하신 군산숲정신건강의학과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동심어린이집 원아들, 2026년 백만천사 1호 나눔 활동**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13일 2026년 새해 백만천사 기부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2026년 백만천사 1호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백만천사 1호의 주인공은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동심어린이집(원장 민덕화)의 원아들로, 이날 전주시 취약층을 위해 기부금 120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서 동심어린이집 원아

동아리로부터 선물 받은 저금통에 직전에 동전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을 전주시복지재단에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동심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 활동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작은 나눔이 큰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백만천사 캠페인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120명은 지난해 동전주우체국 FC

/정혜민 기자


**익산 현대장미슈퍼,  
저소득층 가구에 500만원 기탁**

익산시는 13일 ‘현대장미슈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원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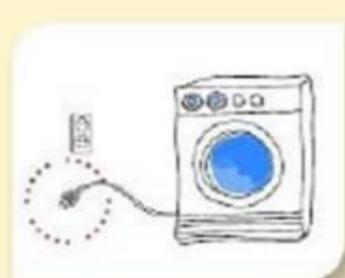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따뜻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가전제품

### 화재예방 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

#### 제품관리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코드를 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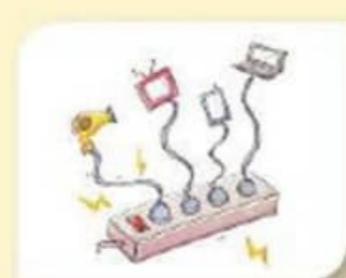


연기나, 타는냄새가 날 경우  
전원코드를 빼고 해당 업체로  
문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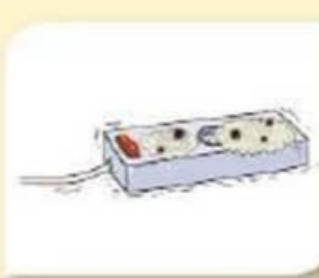


전원코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  
하지말고 해당업체에 문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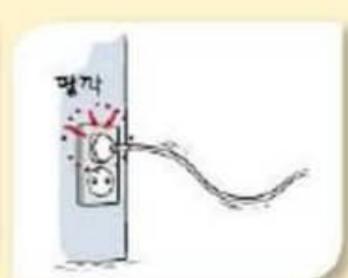
#### 주변관리



멀티콘센트 사용시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코드를 뻗 후  
마른수건으로  
먼지를 청소 해 주세요



전원코드를 끌까지  
꽃아 주세요

**JBT**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一事一言〉



## 과거 성과 분석 통해 올해 '실패의 반복' 끊어내야

홍종학

전 중소벤처부 장관

2026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보름여가 지났다. 매년 이맘때면 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선행 자세를 바로잡는다. 헬스장 회원권은 불티나게 팔리고,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는 자기계발서들이 점령한다. 새사람이 될 것 같은 설렘과 의욕이 교차하는 시기다. 그러나 냉정하게 되돌아보자. 우리가 세웠던 작년의 계획, 재작년의 달성을 지금껏 살아남은 것은 몇 개인가?

동기부여의 대가이자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인간이 가진 이 '작심삼일'의 구조적 결함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그는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방법의 부재'에 있다고 말한다. 막연한 희망 사향이 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로서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제안하는 2026년의 조언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현재 위기론이 대두되는 한국의 투자 시장과 국가 정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니엘 핑크는 그의 저서 '후회의 재발견'을 통해 후회라는 감정이 가진 생산적인 힘을 강조한다. 그는 새해 계획을 세우기며 앞서 두 가지 단계의 '후회 분석'을 제안한다. 첫째, '사후 분석(Post-mortem)':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후회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고 잊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핑크는 후회를 정면으로 응시하라고 말한다.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 계획으로

으로 놓친 기회들을 목록화하고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추출해 실천 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 분석(Pre-mortem)': 올해 연말에 내가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 것인가? 이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기법이다.

"2026년 12월 31일, 나는 왜 또 목표 달성을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있을까?"를 미리 상정해 보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을 미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그 핵심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 기제를 오늘부터 구축하려는 뜻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열심히 살라'는 격려보다 훨씬 실질적이다. 인간은 이득을 얻을 때보다 손실을 회피할 때 더 강력한 동기를 얻기 때문이다.

핑크의 조언을 가장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역설적이게

도 뜨겁게 달아오른 한국의 주식 시장이다. 2026년 초 한국 증시는 작년 저점 대비 100% 상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지표 상으로는 축제 분위기여야 마땅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지수는 두 배가 되었는데 내

계좌는 왜 마이너스인가?

이 현상의 핵심에는 '도박으로 서의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많은 개인 투자자는 험리적 분석보다는 고위험·고수익을 노린 테

마주와 중소형주에 몰입한다. 이는 투자자 아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현실판이나 다름

없다. 누군가의 불운이 나의 행운

이 되길 바라는 제로섬 게임에 인생을 거는 것이다.

주거 안정·정책, 가계부채 해결책, 부동산 PF 부실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템토식 처방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면 그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관료주의'는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예산의 기계적 집행에만 몰두한다.

새로운 정부나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화려한 청사진을 목격한다. 'AI 선도국가', '에너지 혁명', '민생 안정' 등 구호는 화려하지만 그 알맹이는 늘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구조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 지역구 예산 행기 기에는 혈안이 되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따지는 '결산' 과정은 요식 행위로 치부한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생략되니, 공무원들은 실패할 것이 뻔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다시 옮린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같은 방식의 반복'이다. 과거를 평가하지 않는 조직은 미래를 설계할 자격이 없다. 2026년

의 정부 예산이 2025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신규 사업 발굴'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철저한 평가에 따른 폐기와 조정'이다.

다니엘 핑크의 조언과 아인슈타인의 경고는 결국 하나의 지침을 향한다. "과거를 정직하게 대

면하라"는 것이다. 성실하지만 방법을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2026년은 '성실히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내가 왜 작년에 좌절했는지, 어떤 유혹에 약했던지를 분석하는 것이 100권의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보다 유익하다.

투자자들에게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로 거듭나는 결단이 필요하다. 시장이 타오를 때일수록 자신의 투자 원칙을 점검하고, 감정에 훨씬 빠른 배팅을 멈추는 용기가 수익률 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왜 지난 정책들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대국민 보고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조직만이 새로운 시대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2026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달랐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시작은 화려한 디자인 아니라, 작년의 조라했던 실패를 가감 없이 기록하는 일기장의 첫 페이지가 될 것이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혁신이다.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재개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첨단복합소재를 기반으로 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지역 산업의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선택이다.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각 250억 원, 총 5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완주·부안 일대에 원스톱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방위산업에서 찾겠다는 분명한 선언으로 읽힌다.

또한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역시 병행돼야 한다. 첨단방산소재 산업은 고급 연구인력과 숙련 기술 인력이 핵심 자산인 만큼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연계 교육과 공동연구를 통해 인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연구자와 기술 인력이 전북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방산클러스터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뿌리내릴 때, 전북의 산업 구조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다. 전북은 탄소,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소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전북도가 이번 도전을 통해 첨단소재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이는 전북만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치밀한 준비와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 사설

## 원스톱 방산클러스터, 전북이 최적지인 이유

전보다 공모 선정 이후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관건이다. 시험·설계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인증과 조달 시장 진입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R&D와 기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지역 기업들이 시제품 제작과 수출시장 개척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도 촘촘히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역시 병행돼야 한다. 첨단방산소재 산업은 고급 연구인력과 숙련 기술 인력이 핵심 자산인 만큼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연계 교육과 공동연구를 통해 인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연구자와 기술 인력이 전북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방산클러스터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뿌리내릴 때, 전북의 산업 구조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다. 전북은 탄소,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소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전북도가 이번 도전을 통해 첨단소재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이는 전북만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치밀한 준비와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목조, 불상  
-지정일 - 2017년 3월 3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순창군 장류로 197-22  
(순창읍, 대모암)

JBT 전북타임스		2011년 10월01일 창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강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6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충청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고창지국 010-8642-6502
인구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주시 010-2433-1721
제주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원주지국 010-3672-0308
송천지사 010-5242-3694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오늘의 시

## 겨울 산의 환호 / 차 옥 혜

장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여  
한밤중 어처구니없이  
사리사욕에 눈먼 어둠이  
총들고 장갑차 헬기 몰고 와  
당신 짓밟고 깔아뭉개려 했지만  
당신 자식들 전광석화로 뛰쳐나와

맨몸으로 어둠 물리치다니!  
혹독한 엄동설한에 시달려도  
기필코 거듭거듭 봄 불러와  
활엽수들 새 잎새 반짝이며  
못 생명 품고 키우며  
수만 년 제자리 제 뿌리 지키는

우리 겨울 산의 정기 빼닮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여  
마침내 또다시 봄 싱고 오는  
아침 해 뜨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세세토록 승리하리  
장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여

시인 악력 : 1945년 전주 출생. 경희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경희문학상을 수상

했다. 시집으로 '깊고 먼 그 이름' '비로 오는 그 사람' '발아래 있는 하늘' '흙바람 속으로' '아름 다운 둑' '위험한 향나무를 버릴 수 없다' 등이

있고, 시선집으로는 '연기 오르는 마을에서' '햇빛의 몸을 보았다' '그 흔들림 속에 가득한 하늘' 등의 작품을 남겼다.

정학한글-스 따른 소식

전북의 곁에서 전북의 이야기를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 고창읍 고창경제관광의 핵심이 되다

국내 최고시설의 도서관·전통예술체험시설은 물론, 사계절 꽃피는 정원까지 단 도보 10분내 마련됐다.  
오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즈넉한 읍성과 함께 삶의 터전을 일궈온 고창군 고창읍이 고창경제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편집자주)



고창황윤석도서관

## 도보 10분내 황윤석도서관·꽃정원·보훈회관 전통예술체험마을 등 속속 준공 도보 15분내 어린이체육관·고인돌생태공원 등 건립으로 완벽한 문화생활기반 구축

고창군 고창읍의 랜드마크 '고창읍성'은 자연석을 그대로 짜 맞춰 측조했다. 자연미가 있어 아름답고 서로 맞물려 있어 견고하다. 성곽은 남쪽 장대봉(108m)에 좌청룡 우백호의 지세를 최대로 이용해 만들어졌다.

'전통예술체험마을' 도예·자수·염색 등 최고의 전통 예술체험

툇마루에 앉아 성곽 너머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 최근 고창읍성 서문인 전서루 아래 고풍스러운 한옥건물 여러 채가 들어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가장 큰 건물을 자랑하는 풍요재에선 전북무형문화재 자수장이 상주하며 전통자수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바늘과 색실로 무늬를 놓는 과정을 가까이서 보고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다. 옆 공간에는 쪽빛이나 천연염료를 활용한 손수건·스카프 물들이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비오는 날 처마에서 떨어지는 벗방울의 운치와 달빛을 받은 한옥에서의 풍류체험은 감성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유채, 갓꽃로 인생샷 성지가 된 고창천, 장어구이·주꾸미 샤브샤브를 비롯해 맛집이 즐비한 고장전통시장과 도보로 단 5분 거리다. 이로써 단순히 스쳐 가는 관광지를 벗어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함께하는 체류형관광의 디딤돌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원도심·신도심 '신구 조화'… 과거·현재·미래 공존 '종묘' 모티브 고창황윤석도서관 개관

고창읍 주민들의 삶도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고창읍 어디서든지 도보 10분내 명품 도서관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국내최고 시설에서 독서와 각종 문화강좌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3일 고창황윤석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도서관 설계는 유현준 건축가가 맡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유 건축가는 종묘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깊이를 재해석한 목구조로 설계했다. 기존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의 형태를 갖춰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100년 뒤에도 역사적 가치와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사랑받을 전망이다.

'사계절 꽃피는 고창' 고창꽃정원 최고의 레이트코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아이와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

볼 수 있는 집 주변 공원도 대폭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노동저수지 아래 자리잡은 '고창꽃정원'은 아름다운 꽃과 조형물로 지역주민들의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모양성제 때에도 야간 경관조명으로 꽃정원 밤길이 이어지면서 올해 이어질 꽃정원 본 프로젝트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고창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농과 꽃정원이 연계한 6차 산업의 체험카페, 치유프로그램, 농특산물 판매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식재된 식물을 활용해 놀잇감 만들기, 정원 관련 그림책 읽고 식물 탐색하기 등 다양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연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고창군 보훈회관 개관, 보훈 문화 확산 거점

고창군 보훈회관은 총사업비 49억5000만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418㎡, 연면적 994.18㎡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보훈단체 사무실, 다목적실, 소회의실, 상담실,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카페 등이 조성돼 보훈가족은 물론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설 노후화와 단체 분산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통합된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맞춤형 보훈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집 앞에서 즐기는 수준급 체육시설 인프라

고창군은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과 엘리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곳곳에 수준급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고창 스포츠타운'에는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이 들어서며 각종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수요에 맞는 명실상부한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도로 15분내 장애인생활밀착형 체육관과 장애인평생학습센터, 어린이체육관, 고인돌 생태공원 사업을 통해 완벽한 문화생활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우리 자녀세대들이 도전해 봄직한 일자리가 있고, 자유로운 여가생활도 누리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목표다"며 "도시의 중심 고창읍의 신선한 변화를 통해 군민 행복과 활력 고창에 더 가까운 이정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